

壽宴和答時調 研究

鄭 明 世

目 次	
I. 序 論	1. 原文 및 流布狀況
II. 出 典	2. 背 景
III. 作 家	3. 內 容
1. 盧 禎	4. 形 式
2. 玉溪母 權氏	5. 價 值
3. 趙宗道	V. 結 論
IV. 作 品	

I. 序 論

和答歌란 詩歌를 서로 부르고 答하는 形式으로 된 것을 말하며,¹⁾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使行酬唱詩, 宴席에서의 文士들의 和答漢詩, 才閨들의 筆談戲答詩, 妓女群의 和答時調 등이 있다.

한편 和答時調의 境遇 30餘名에도 못미치는 妓流作家들이 남긴 作品들이 그 主流을 形成하고 있다.

그런데 筆者가 本稿를 통해서 論及하고자 하는 「玉溪先生續集」이란 文獻에는 都合 3人의 和答時調가 실려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 玉溪母 權氏와 趙宗道の 作品들은 「歷代時調全書」에 未收錄된 新資料이다. 더구나 玉溪母의 作品은 作家가 士大夫家 女人이란 點을 비롯하여 形式조차도 和答時調이며 그 內容이 종래에 볼 수 없는 壽宴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注目된다.

이 新資料 「玉溪先生續集」所收 時調에 대해서 李秉岐, 崔勝範, 李東英等 諸先學의 言及이 있기는²⁾ 했으나 簡略한 紹介 程度에 그치고 있다. 筆者

1) 서울대 東亞文化研究所編, 「國語國文學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74), p. 697 參照.

2) 李秉岐, 「歷代時調選」, (서울: 博文出版社, 1946), pp. 37~38.

는 이 文獻에 收錄된 盧禎의 〈造筵宴獻萬壽山歌〉, 〈母夫人壽宴歌〉와 그의 母親 權氏의 〈母夫人答歌〉, 그리고 玉溪 門人 趙宗道の 獻詩 등을 묶어서 ‘壽宴和答時調’라 命名하고 이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論及하고자 한다.

Ⅱ. 出 典

「玉溪先生文集」은 盧禎의 詩文을 收合해 놓은 文獻으로³⁾ 鄭蘊의 序文과 宋秉璇의 跋文이 첨부되어 그의 死後 50餘年만인 仁祖 10年(1632)과 高宗 10年(1873)의 두 차례에 걸쳐서 刊行되었다.

한편 筆者가 調査 確認한 「玉溪先生文集」의 書誌狀況은 아래와 같다.

原集

7卷 4冊, 冊大 縱 29cm, 橫 21cm

表題名 玉溪集, 內題名 玉溪先生文集

韓裝 五間裝冊, 黃色表紙, 內廓 縱 21cm, 橫 19cm

版心; 上下向花 紋魚尾 上下白口, 四週雙邊

有界 本文 10行 1行 20字 注單行

版種; 木版本

續集

4卷 2冊, 冊大 縱 31cm, 橫 21cm

表題名 玉溪集, 內題名 玉溪先生續集

韓裝 五間裝冊, 黃色表紙, 內廓 縱 22cm, 橫 18cm

版心; 上下向花 紋魚尾 上下白口 四周雙邊

有界 本文 10行 1行 20字

版種; 石印本

上記 盧禎의 文集은 2次에 걸쳐서 刊行되었는데, 初刊은 7卷 4冊으로, 그

崔勝範, 壽宴和答歌, 「廣場」79年 5月號, (서울: 世界平和教授協議會, 1979), p. 53.

李東英, 「江右詩歌研究」序說, 「陶南學報」第四輯, (서울: 陶南學會, 1981), pp. 102~103.

——, 盧玉溪의 生涯와 時調, 「朝鮮朝 嶺南詩歌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1984), pp. 156~168.

3) 本 「玉溪先生文集」은 서울大, 成均館大, 嶺大 所藏本이 있다. 筆者는 1981年 10月 成均館大 所藏本을 借覽할 好緣을 가진 바가 있다.

의 長子 盧炤이 일찌기 先親의 詩文을 모아 편찬한 바가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壬亂으로 인해 版本이 遺失된 바가 많았기 때문에, 高宗 10年(1873年)에 宗孫 盧翬이 初刊本 文集을 增補하여 續集 4卷 2冊을 重刊했다.

그러면 玉溪의 文集 原集과 續集의 內容을 編次에 의거하여 살펴본다.

原集

序文

目錄

卷之一

詩 泛菊仍得一絕 外 87首

賦 三無私賦 外 2篇

表箋 降勅 賜物謝表 外 2篇

卷之二

祭文 祭安左相弢文 外 36篇

卷之三

行狀 考判書府君行狀 外 3篇

卷之四

疏狀 辛酉歸養疏 外 7篇

啓 請還牧趙憲推考啓 外 2篇

狀 辭同知中樞府事 外 2篇

書 答李龜巖 外 3篇

卷之五

雜著 重刊養正編跋 外 7篇

奏 奏廣寧都御史

論 死病無良醫

記 遊長水寺

序 司馬齋題名錄序 外 1篇

卷之六

外集 世系, 年譜, 行狀, 諡狀, 墓誌銘, 神道碑銘

卷之七 賜祭文, 賜額文, 士林祭文 外 祭文 3篇

續集

序文

目錄

卷之一

4 嶺南語文學 (第11輯)

詩 春帖亭 外 106首

歌 御製歌 外 4首

卷之二

祭文 靈川葬時送奠文 外 48篇

墓碑誌 高祖叅判公墓碣陰 外 2篇

啓 經筵進啓 外 1篇

狀 辭副提學狀 外 6篇

卷之三

書 奉 教諭京畿道觀察使愼希復書 外 3篇

雜著 記夢 外 1篇

論 四皓有無辨 外 5篇

卷之四

外集 詩 贈玉溪 外 12首

輓章 白玉峯光勳 外 20篇

祭文 弘文副提學許曄 外 7篇

答書 盧蘇齋守愼

墓表 贈諡文孝公玉溪盧先生墓表

事蹟 新溪書院事蹟 外 3篇

文 慶尙道儒林通文 外 2篇

疏 幼學李啓鎬等再封疏

跋

위에 紹介한 文集의 內容中에서 壽宴和答時調는 初刊本인 「玉溪先生文集」 原集 刊行時에는 漏落되었으나, 後孫에 依해서 小중히 傳承되어 오다가 續集에 收錄되는 好緣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 時調作品은 이 「玉溪先生續集」 卷之一 第34・後面에서 第35・後面에 걸쳐 收錄되어 있는데 모두 5首에 이른다. 여기 5首 가운데 먼저 1首는 宣祖의 作品이고,⁴⁾ 그 다음 2首는 玉溪本人의 作品이며, 나머지 1首는 玉溪母 權氏의 所作이고, 또 다른 1首는 門人 趙宗道の 作品이다.

4) 既刊 「歷代時調選」, 「歷代時調全書」 등에서 本作品의 出典을 밝히지 않았다. 의당 그 出典을 「玉溪先生續集」이라고 明示해야 한다.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서울: 世宗文化社, 1972), p. 739 參照.

Ⅲ. 作 家

1. 盧 禎

盧禎은 字를 子膺 號는 玉溪라 했으며 本貫은 豐川이다. 그는 中宗 13年(戊寅, 1518)에 出生하여 宣祖 11年(戊寅, 1578)에 卒하였다.⁵⁾

먼저 玉溪의 家系를 살펴보면 遠祖는 麗末의 國子進士에 오른 諱가 裕라는 분이다. 그는 外亂을 대피하기 위하여 慶尙道 咸陽郡으로 移居한 바가 있었으며, 子孫 代代로 이곳에 머물러 生活하게끔 되었다. 玉溪의 高祖 焉은 司正을 지냈으며, 兵曹叅判에 贈職되었고, 曾祖인 叔全은 早年에 科擧에 及弟하여 文人으로 名聲을 얻었다. 아울러 世宗代에 叔全이 禮曹叅判에 이르렀고 大司諫으로 清白吏에 뽑힌 분이다. 祖考의 諱는 盼이며 才氣過人하여 禮文館校理에 있었으나 早卒한 것으로 되어 있고, 玉溪의 先考 友明은 號를 信古堂이라 했으며, 成宗 2年(1471年)에 出生하여 中宗 36年(1541年)에 卒하였다. [그는 鄭汝昌이 門生이요, 學行이 士林에 著名하였고 少時에 進士의 나갔으나 科擧에 盡力하지는 않았다. 性品이 貞潔하고 뜻이 高尚하였다. 그 후 金安國이 鄕里에 들렀을 때 그의 명성이 朝廷에 알려져서 顯陵 叅奉에 除受되기는 했으나 不幸히 早歿하였다. 後日 玉溪의 榮貴로 인하여 吏曹判書에 追贈되었다.

한편 玉溪는 天資가 뛰어나서 容貌와 行止가 凡常치 않았다. 6歲때에 父親 信古堂을 여의고 兄을 태령, 喪主로서의 禮를 다 하였다. 10餘歲가 지난 에는 文理가 通하여 文章을 作하매 文士들도 양보하였다. 20歲에 生員試에 合格하여 太學에 들어가 金河西, 盧蘇齋, 洪恥齋 등 名士와 함께 깊이 사귀어 서로 講討하였다. 明宗 元年(1546年) 增廣文科 乙科에 及弟하여 承文院 權知正副字에서 正字에 오르고 著作兼奉常直長 翰林에 추천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明宗 5年(1550年) 典籍에 올라 知禮縣監에 임명되어 清白吏로 뽑혔다. 이어서 修撰, 副校理, 持平, 校理를 거쳐 明宗 13年(1558年)에 侍講院 弼善에서 副應教에 오르고 이듬해 特旨로 掌令이 되었다가 司僕寺正을 거쳐 議政府檢詳, 舍人, 執義, 典翰, 直提學을 歷任하였다. 明宗 15年(1560年)

5) 盧禎의 生涯 및 爲人에 관해서는 「玉溪先生文集」에 실린 行狀(林熙撰)과 年譜를 參照하였다.

刑曹參議에, 그리고 同副承旨에서 右副承旨가 되었다가 母親의 便養을 위해 潭陽府使로 나갔으며, 明宗 22年(1567年) 吏曹參議에서 忠清道觀察使로 任命되고, 이 해 겨울에 全州府尹이 되었다. 다시 宣祖 3年(1570年) 副提學이 되고, 宣祖 5年(1572年) 大司諫, 吏曹參議, 右副承旨에 選任, 사양하였다. 後에 慶尙道觀察使가 되고 연이어 大司憲, 兵曹參判, 藝文提學, 吏曹參判을 역임하고, 宣祖 8年(1575年) 禮曹, 吏曹, 刑曹, 工曹의 判書로 拔擢되나 모두 不赴하였다. 宣祖 10年(1577年) 다시 兵曹判書에서 吏曹判書로 옮겼다. 公의 諡號는 文孝이며, 南原의 滄州書院과 咸陽의 滄州書院에 奉享되었다. 특히 仁祖 7年(1629年)에 내린 諡號를 ‘文孝’라 했는데, 文은 勸學好問을 뜻하며, 孝는 慈惠愛親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던 玉溪의 學業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의 學業은 中宗 21年(1526年) 9歲때에 從兄인 盧禎, 盧祥을 따라 시작되었다. 후일에 玉溪는 中宗 27年(1532年) 15歲때 學名이 높았던 塘谷 鄭希輔에게서 「大學」章句輯釋을 研精하고 科文과 韓文書 등을 강론받았는데, 이때에 그는 聖門之學의 大義를 거렸다. 中宗 29年(1534年) 17歲時 別科에 首位로 合格했는데 卷子에 쓰인 文章의 뛰어난데 감복하여 考官이 서로 다투어 살피고자 했다고 한다. 中宗 35年(1540年) 23歲以後는 世態가 어지러워 官職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聖賢의 道學을 포부로 하여 儒學의 學究에만 몰두하였기에 마음 속에 울어난 文章을 쓸 수 있게끔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文章은⁶⁾ 그 근원이 잠잠하고 敦厚하며 순수하고 精明하여 털끝만큼도 浮薄하고 駁雜함이 없었다. 아울러 表現에 있어서도 자연히 條理가 分明하고 光輝가 哀澹하며 趣意가 悠遠하고 音韻이 和平하였다. 各 文章의 內容을 보면 시종 孝悌의 마음이 쌓여서 辭章과 上疏속에 나타나 간절하고 惻怛하며, 忠誠과 사랑의 마음이 쌓여 임금에게 啓沃하고 誠實하고 光明하였다.

그는 朝廷의 經筵에 임해서는 목소리가 맑고 부드러우며 文章의 해독이 상쾌하고 간절함을 보였었다고 한다. 文集에 적힌 經義의 正解는 그의 학문이 모든 分野에서 해박함을 보여준 증거가 된다.

이어 玉溪의 孝行譚 數例를 紹介한다. 그는 前述한 바와 같이 6歲되던 中宗 18年(1523年) 10월에 父親喪을 당해 伯氏를 배형하여 居廬를 함께 했으며, 冬節이라도 항상 몸을 깨끗이 씻고, 상주의 괴로움을 견디어 내는 것을

6) 玉溪의 文章에 대한 評은 「玉溪先生文集」序文에 실린 鄭蘊의 評文을 참고하였다.

3年을 하루같이 했다. 또한 玉溪는 伯兄 進士公을 父親같이 愛敬을 함께 했으며, 항상 進退奉承하는 데 있어 그 精誠이 始終 한결 같았다. 33歲 되던 明宗 5年(1550年) 伯兄이 母卒함에 哀慕하고 號哭하기가 初終이 같았으며 남은 家事들을 親族같이 돌보았다. 43歲때에는 만누이의 喪事를 당하여 그의 哀痛은 극진한 바가 있었고, 母親의 슬픔을 의로하기 위해 下鄉의 뜻을 밝힌 내용의 상소를 조정에 올려 孝友의 본모기를 보였다. 한편 宣祖 8年(1575年) 58세때에 母親의 병환을 당해서는 帶조차 풀지 않고 10餘日을 보냈고, 母親喪을 당하여서는 추운 겨울임에도 화로를 가까이 하지 않고 墓側에 기거하며 분묘에 哭拜함을 그치지 않았다. 이처럼 그는 忠孝의 면에서 儒家의 典範을 보인 人物⁷⁾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타 玉溪의 履歷을 보면 그는 鄭汝昌의 門人 盧友明의 次男으로 爲先之心的 일환으로 鄭汝昌을 모신 藍溪書院의 創建에도 힘썼다.⁸⁾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玉溪가 湖南의 詩歌人 宋純과 접촉이 잦았던 점이다.⁹⁾ 즉 盧禎과 宋純은 남다른 交分이 있었다. 宋純은 그에게 준 詩에서 “設與使君同獨話 一宵開盡百年心”(밤을 세워 촛불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평생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다)라 한 것은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 「僞仰集」年譜(明宗 16年, 宋純 69歲)에는 ‘玉溪盧公來遊潭陽府’라 하여 玉溪가 僞仰亭의 隱居地에 赴任해 온 사실을 명기하고 있으며, 「僞仰集」卷三 詩에는 〈附盧子膺次韻二首〉라는 宋純의 詩가 보이고, 同 卷七에는 玉溪의 〈次僞仰亭韻詩〉가 紹介되어 있음을 볼 때에 두 사람의 交遊關係에 짐작이 간다. 이로 인해 盧禎은 國文詩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2. 玉溪母 權氏

그 身分이 女性일 境遇 그 生涯를 살피는데 필요한 資料는 희귀한 실정이다. 本項의 玉溪母 權氏도 그 例外는 아니다. 本稿에서는 盧禎이 쓴 〈先妣貞夫人權氏行狀〉¹⁰⁾과 〈先妣貞夫人權氏墓誌〉¹¹⁾의 記錄을 參考로 해서 그녀의

7)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서울: 瑞文堂, 1977), p. 76 參照.

8) 類號는 明宗 21年(丙寅, 1566年) 7월에 받았으며, 이처에 같이 협력한 분은 九 拙 梁喜, 靑蓮 李後白, 介庵 姜翼 등이 있다.

9) 「僞仰集」卷三, 第17面 參照.

10) 「玉溪先生文集」卷之三, 第6前面~第8後面 所收.

11) 「玉溪先生文集」卷之三, 第26前面~第27後面 所收.

生涯 및 爲人을 밝혀보고자 한다.

權氏夫人의 本貫은 安東이며 高麗太師 金幸의 後裔로 成均生員 權時敏과 草溪 鄭氏 사이에서 成宗 21年(1490年) 10월에 出生하였다.

그녀는 幼時에 벌써 靜淑하고 端正하며 縫裁에 能하고 親戚들 사이에서도 賢明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成長하여 나이 20歲되던 中宗 4年(1509年)에 親家를 떠나, 그녀는 慶南 咸陽郡 北德曲 介坪村 盧友明家로 出嫁를 했다. 男便인 盧友明은 본디 學問에 높은 뜻은 지녔으나 家事에 소홀하게 되니 婦人이 힘쓰는 바가 많았다. 權氏夫人은 門中에 들어와서는 內事를 주관할에는 힘을 다하여 다스리고 근검, 절약하며 부지런히 행동했으며 慈愛로 家事들을 돌보았고 一家의 飢飽를 男便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해서 그의 근심함을 없게 했다. 또한 奉祀에도 오직 極意로 임하게 되니 男便인 信古堂도 德을 갖춘 婦人이라 말하고, 後日에 그 報答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宗 18年(1523年) 그녀의 나이 34歲때에 男便 盧友明의 喪을 당해서는 哀痛함이 극진하였으며 誠을 다했다. 男便의 3年喪을 마친 權氏夫人은 子弟와 他家事들을 거느리고 門中을 지키려고 애썼으며 賓接客 等 家事를 條理 있게 처리하였다. 아울러 他門의 婚事에 있어서도 往來가 있었고 집안을 대신하여 그 뜻을 전하는데 게으름을 보이지 않았다.

玉溪의 伯兄 進士公이 京師에서 還鄉하여 數年을 같이 지나게 되었는데, 夫人이 항상 慈愛로 대했으며, 家事를 돌보고 남은 餘力으로 子弟들에게 學問의 未盡한 바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 子弟 玉溪가 後日 光榮의 地位에 오르게 된 데는 母親의 보살핌의 힘이 컸다.

이처럼 婦女子의 美德인 賢淑을 갖추려고 애썼던 夫人은 家內의 下人들에게도 嚴格함과 慈愛로움으로 대했기에 그들도 진심으로 夫人을 존경하고 추종해 마지 않았다. 그녀는 平生을 家長格으로 한 집안의 大小事를 처결함에 公平했으며 연약한 家牽들의 마음을 달랠으며 친척간에는 和睦함을 도모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는 인색함이 없었다. 夫人은 中年以後 數次 앓아 눕기는 했으나, 그대로 완강히 버티고 쇠약함을 보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生涯中 悲劇은 65歲되던 明宗 5年(1550年)에 長男 進士公이 世上을 떠난 일이다. 그때에도 夫人은 마음을 가다듬고 玉溪에게 子弟와 孫子들을 잘 돌보아 주도록 했다. 아울러 75歲때인 明宗 15年(1560年)에는 申靈川家로 出嫁한 長女の 죽음을 目睹하게 되는 苦楚도 겪었다. 하지만 홀로 남은 玉溪의 孝行을 항상 받았고, 그가 58歲되던 宣祖 8年(1575年)

10월에 夫人은 86歲로 世上을 떠났다.

死後에는 獨子가 된 玉溪의 孝行과 榮貴로 인해서 그녀에게는 貞敬夫人의 牒紙가 내려졌는데 이는 玉溪家門의 榮光된 일이고, 婦德의 龜鑑이 되는 一生을 살아간 그녀에게 내려진 당연한 結果인 것이다.

3. 趙宗道¹²⁾

趙宗道는 字를 伯由 號를 大笑軒이라 했고, 中宗 32年(1537年) 父 趙堰과 母 姜氏의 長子로 咸安郡 西院 北洞에서 出生하였다.

그의 家系를 보면 高麗 元尹 趙鼎을 始祖로 했으며, 世祖朝 生六巨인 趙旅는 五代祖이고, 高祖는 趙金虎로 僉知中樞府事를 지냈고, 曾祖인 趙壽萬은 將仕郎이었고, 祖父는 安陰縣監 趙應卿이고, 先考는 奈奉 趙堰이다.

大笑軒은 9歲에 陸看子 鄭斗에게 受學하였는데, 童명이 過人하여 經史諸子를 一讀하면 平生동안 잊지 않았다고 한다. 22歲되던 明宗 13年(1558年) 生員試에 合格하였으며, 이해 겨울 南冥의 甥姪되는 李俊民의 따남에게 장가들었던 것을 계기로, 23歲때 嶺節부터는 南冥門下에서 學問에 힘쓰는 일이 많았다. 30歲되던 2月에는 南冥과 斷俗寺에서 會晤를 가졌는데 關天府使 李楨과 義理에 대하여 講論하였고, 3月에는 南冥, 玉溪와 함께 林蒸, 林芸 兄弟를 尋訪하여 玉山洞에서 交遊했는데, 玉溪는 또한 그의 姊兄되는 盧士訓의 父親이며 大笑軒이 그 門生이 된은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大笑軒은 修學時節부터 學問과 道義의 交友가 많았다. 아울러 그는 37歲되던 宣祖 6年(1573年) 2月에 父親喪을 마치자 太學의 進士로 安奇奈房에 授受되었다. 그는 일찍이 退溪門下에서 直接 受學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가, 安東 士林이 廬江 白蓮寺址에 書院을 세워서 祭사하였을 때에, 이 곳을 내왕하면서 退陶의 門弟인 鶴峰, 西厓, 松巖, 賁趾 등 賢士들과 8年에 걸쳐 交遊, 講論하였다. 이어 宣祖 14年(1581年)에 司導寺直長으로 올랐고, 그 후 陽智縣監(宣祖 16年, 1583年) 在職時에는 縣內의 治績으로 국가의 포상을 받았으나, 宣祖 18年(1585年)에는 官을 辭하고 鄉里로 돌아왔다. 그는 宣祖 19年(1586年) 開慶縣監, 宣祖 20年(1587年)에는 漢城府參軍에 任命되긴 했으나, 長子 英海의 죽음으로 赴任함을 사양했다. 다시 宣祖 23年(1590年) 4月에는 鄭汝立의 謀反事件에 연루되었다가, 이 해 赦免되기도 했다.

12) 本項은 趙宗道の <墓碣銘>(許穆撰)과 <大笑軒傳>(柳成龍編) 및 文集「大笑軒先生逸稿」所收 <年譜>에 의거 作成되었음을 밝힌다.

그는 宣祖 25年(1592年) 壬辰年 봄에, 장인 李俊民의 문상을 위해 京師에 들렀다가 倭亂의 消息을 接하게 되어, 鄉里인 咸陽에 내려와 招諭使 金鶴峯, 李魯 等과 合勢하여 倡義文을 지어 배포하고 義兵을 急募하였다. 이리하여 宜寧의 郭再祐를 도우고, 各地에서 活動을 한 타 그 功勞로 掌樂院 僉正, 丹城縣監에 제수되기도 했으나, 官職에는 뜻이 없었다. 宣祖 29年(1596年) 봄에 咸陽郡守에 제수되어 赴任했는데 誠力을 다해서 軍糧이 비축에 힘쓰는 등 政務를 제율하지 않았다.

宣祖 30年(1597年) 丁酉年 봄에 樞密使 李元翼公에게 路文을 올려서 朝廷으로부터 安義 黃石山城의 改築을 명령받고, 安陰縣監 郭浚 等과 軍民을 독려하고 守備의 計略을 세웠다. 그러나 이 해 8月 倭將 加藤이 거느린 敵과 對戰하다가 一家가 殉死했다. 이 때는 그의 나이 61歲때에 해당된다.

그의 死後 光海 8年(1616年), 朝廷에서는 그에게 吏曹判書를 追贈하였고, 英祖 13年(1737年)에는 忠毅라는 諡號가 내려졌다.

大笑軒의 젊은 時節 그와 交遊한 柳成龍은 大笑軒의 人物됨을 評하여
…信由 外若跌宕 內守堅確 有烈丈夫風 有…¹³⁾라 했으며,
許穆도 그의 忠節을 기리며

…許友不辭死 義也 殺身以殉國 節也 惟義惟節 忠臣之烈也…¹⁴⁾라고 《銘》에서 言及한 바가 있는데, 이 두 記錄으로도 그가 어떤 人物이었든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IV. 作 品

1. 原文 및 流布狀況

盧禎의 「玉溪先生續集」에 收錄된 時調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作品은 「歷代時調全書」에 收錄된 바 있는 아래 2首이다.

- ① 萬壽山 上上峯에 萬壽水가 있더니라
그들노 비즌 술이 萬壽酒라 호더니라
眞實노 이 盞 잡으면 萬壽無窮 호오리라.

(「歷代時調全書」 977)

13) 서울大 圖書館 所藏, 「國朝人物考(下)」, (서울: 서울大出版部影印, 1978), p. 343 參照.

14) 註 13)의 冊 p.343 參照.

- ② 日中 金가마피 가지 달고 내말 들어
너는 反哺鳥라 鳥中之 曾參이니
오늘은 날을 위하여 長在中天 하얏고자

(「歷代時調全書」 2448)

①의 作品은 靑丘詠言가람本(456), 靑丘永言淵民本(231), 大東風雅(315) 등 3冊에는 作家名이 보이지 않고 오직 「歷代時調選」¹⁵⁾에만 〈進豐宴獻萬壽山歌〉라 하여 作家를 盧禎으로 記錄하고 있을 뿐이다.

②도 역시 前記 「歷代時調選」에 이미 收錄된 것을 옮겨 적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本 「玉溪先生續集」에는 都合 5首의 作品이 紹介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新資料는 2首이다.¹⁶⁾ 이들 作品은 모두 盧禎의 것은 아니다. 1首는 王室作家 宣祖大王作이고 盧禎作은 2首가 있으며, 다른 1首는 玉溪母 權氏, 또 다른 1首는 玉溪門人 趙宗道作品임은 前項의 出典에서 言及한 바 있다.

이들 作品들은 「玉溪先生文集」續集 〈歌〉欄에 分類, 紹介되어 있는데, 順序대로 그 原文을 옮겨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오면 가랴하고 가면 아니오니
오노라 가노라니 불날히 전려얼지
오늘도 가노라하니 그를 슬허호노라
- ② 萬壽山 萬壽洞의 萬壽泉이 있더이다
이물의 술을 비저 萬壽酒라 호더이다
이잔을 잡으시면 萬壽無疆 호시리다
- ③ 日中 金가마고 가지달고 너말드리
너는 反哺鳥라 鳥中之 曾參이니
오늘은 날위하야 長在中天 호얏고다
- ④ 國家 太平호고 萱堂에 날이진제
머리 흰 判書야기 萬壽盃 드리고
每日이 오늘갓듯면 성이 무슨 가식리

15) 李秉岐, 註 2)의 冊 p.37 參照.

16) 全北大 崔勝範教授가 처음 紹介하였다. 筆者도 年前에 이들 작품을 「歷代時調全書」未收錄 新資料로 처리하고, 研究對象으로 삼은 바가 있다.

拙稿, 古時調文獻의 研究, 嶺南大碩士學位論文, (慶山: 嶺南大, 1982), pp. 25 ~ 27.

아마도 一髮秋毫 聖恩잇가 하노라

- ⑤ 가마고 독기 즐성 그 두어시 밋앗바서
九萬里 長天을 허위허위 가스노고
이치는 실니의 혼편소 수염수염 가렴으나

위 5首의 作品 가운데 本節의 對象인 玉溪母의 回甲과 關聯된 作品은 ②번에서 ⑤번까지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2. 背 景

時調作品의 理解度는 그 作家와 作品을 둘러싼 背景이 되는 歌話까지를 알 수가 있을 때에 그 깊이를 더하게 된다.

本 壽宴和答時調에는 併錄된 歌話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本 作品과 關聯된 「玉溪先生文集」의 記事를 檢討함으로써 創作背景和 時調作品을 남겨 준 經緯가 아울러 밝혀지리라 믿는다.

玉溪 盧禎은 中宗 癸未年(1523) 그의 나이 6歲가 되던 해에 父親 盧友明을 여의었다. 그 以後 孤獨 淸苦 安東 權氏를 하에서 양육되었으며 母親에게 대한 孝行이 지극하였다. 玉溪母는 그가 33歲때인 明宗 5年(庚戌 1550)에 甲日을 맞이했다. 本歌의 歌題에 보이는 것처럼 《母夫人壽宴歌》等 壽宴和答時調는 이때에 지어진 作品이다.

「玉溪先生文集」年譜欄은 玉溪母親이 回甲을 맞이한 明宗 庚戌年條¹⁷⁾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嘉靖二十九年 庚戌 先生三十三歲 生男士訴 伯兄進士公病卒 先生自幼事之如父 愛敬備至 進退奉承之格久而不懈 伯氏稍動於坐則 先生已離席而立矣 自他所至稍聞杖履之音則 先生已下軒楹之下而待之矣 伯氏嘗曰 吾欲與吾弟恒共遊 處以觀講誦之美 而其爲嚴敬反使我不得近也 及是哀慕號哭初終如一 嚴飭葬祭之具而靡有餘力 顯血道孀凋其窮之歲有恆式 得甘旨則 計供大夫人之外 雖豔必分之 撫其諸子無間於已出 諸子亦視猶父焉。』

위 記錄은 友愛가 남달랐던 玉溪 自身에 관한 것이다. 玉溪의 나이 33歲에 士訴이 出生했으며, 伯兄 進士公이 病으로 世上을 떠났다. 玉溪는 어릴 때부터 伯兄 進士公 대하기를 父親과 같이 하여 愛敬을 함께 하였다. 항상 進退奉承하는 데 있어 돈독한 정성이 시종어릴 변함이 없었다. 항상 伯兄이

17) 「玉溪先生文集」卷之四 第5後面~第6前面 所收.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면 玉溪가 먼저 자리를 떠나 일어섰으며, 伯兄이 밖에서 들어올 때에는 지팡이 옮겨 짚는 소리만 들리면 벌써 마루에서 내려서서 기다렸으니, 伯兄이 말하기를 내 항상 아우의 노는 곳에서 행동하거란 도리어 나로 하여금 접근하기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玉溪는 伯兄의 喪事를 당하여 哀慕하고 號哭하기를 初終을 한결같이 했으며, 홀로 된 兄嫂를 정성껏 돌봐서 불편을 덜어주고 조카를 愛育하기를 親子息같이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玉溪의 友愛는 유별했다. 이런 사실은 그의 家系에 관한 記錄에서 알 수 있고 이는 그들 家門의 遺風이기도 한 것 같다. 이처럼 玉溪가 友愛가 出衆한 人物로 널리 알려진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또 그가 孝誠이 두드러진 것을 입증하는 一例는 父親의 別世時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伯氏를 倍行하여 墓前에서 居廬를 함께 했는데 어느 날 母親이 그곳까지 찾아와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어려서 혈기가 미정하니 下山함이 좋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때에 그는 나이 어리다고 父喪에 임해 喪主노릇을 못해야 되겠느냐고 대답하고¹⁸⁾ 계속 3년을 侍墓하는 精誠이 변함이 없었다.

또한 玉溪는 母夫人 寢所의 溫冷을 맞춰 모시는 精誠과 함께 平生을 下人들에게 母夫人의 侍中드는 일을 맡기는 일이 없이 손수 보살피 드렸다.

앞에서 玉溪의 孝誠이 始終如一 特出했음을 살펴 보았거니와, 그는 婦道 높은 慈侍下에 侍側못함을 恒時 恨스럽게 생각했다. 즉 官職生活에 나아가가 外地의 離任때마다 홀로 제시는 老母를 모시지 못함을 생각하고 辭職의 뜻을 밝혔다. 그의 官職이 司憲府, 議政府檢詳, 成均館直提學, 通政大夫刑曹叅議, 承政院副承旨를 거치는 동안에 여러 번 歸鄉의 뜻을 밝혀 鄉里에 돌아가 老母를 편안히 모시고자 했다. 玉溪母親이 回甲을 맞는 明宗 庚戌年에도 同類의 일이 있었다. 이 事實을 짐작할 수 있는 記錄을 引用해 본다.

『(前略) 陸實副正字 轉正字著作兼奉常直長 嘗再薦翰林 皆辭避不就 講謚公之志不喜榮進阻勉得一縣歸爲老母養也 庚戌春 罷爲典簿即薦禮曹佐郎巧 外出補知禮縣時 明憲命揀中外莅官廉謹者 公與焉』¹⁹⁾

그는 庚戌年 正月에는 正字로 또 著作兼奉常寺直長에 올라서 啓功 거제를 받았다. 다시 翰林에 천거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그

18) 『玉溪先生文集』卷之六 第1後面~第2前面 參照.

19) 『玉溪先生文集』卷之六 第2後面~第3前面 所收.

의 뜻이 榮進에 기뻐하지 않고, 오직 老母를 모시기 위해 一個 縣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해 봄에 成均館典籍에 陞拜되었다가 곧 연이어 禮曹佐郎에 추천되었다. 그러나 그후 그의 뜻대로 外職인 知禮縣監에 임명되어, 母親이 계시는 鄉里 隣近에 赴任하게끔 되었다.

한편, 母親인 貞夫人 權氏는 出嫁한 후 일찌기 男便의 別所로 인하여 玉溪를 위시한 餘他 子女를 혼자서 훌륭히 양육해 낸 분이다. 그녀는 婦德과 學識을 고루 갖춘 賢母였으며, 名門出身인 만큼 어려서부터 女佐로서는 힘든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女工도 익혔다. 權氏夫人은 盧氏門中으로 출가한 후로는 治産하는 일, 子女를 교육하는 일, 그리고 비복을 거느리는 일들을 일체의 法度와 慈愛로써 했었고, 파란많은 一生을 사는 동안에 女中君子의 존경을 받았다.²⁰⁾ 특히, 玉溪는 父親이 일찍 別世했으므로 母夫人에게서 받은 影響이 지대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러므로 明宗 庚戌年에 母親 回甲을 맞는 玉溪와 當者인 母親의 情懷는 남다른 바가 있었을 것이다. 玉溪 自身도 近邊 知禮縣監으로 任地에 있었고, 母親 權夫人도 침착, 성실하게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고 女中君子로 數十年을 경과하여 어느덧 六旬을 맞이한 것이다. 거기다가 前述한 바와 같이 孝行이 유별했던 玉溪인지라, 母夫人의 壽宴에 임하여 스스로 母親의 頤壽 및 아래로는 得子 得孫의 弄慶의 榮光을 詩文으로 읊었던 것이다. 무릇, 人間이 世上에 處하매 生老病死의 四苦가 있게 마련이고, 그 어떠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되면 그것을 機會로 축하하는 것이다. 특히 六旬이 되는 回甲에 있어서는 獻壽의 절차가 따르는 것이고, 친척, 知舊間에 많은 果品이나 갖은 음식을 배풀고, 子, 婿, 弟, 姪의 순서로 長壽를 獻賀하며, 詩文으로 祝賀의 뜻을 표시하는 例도²¹⁾ 많이 있다고 한다.

특히 回甲日에는 남의 나이를 먹는다거나 世上을 두 번 산다고 말하고, 回甲宴을 산 祭祀를 지낸다고 말하기도 하며, 祭床과 다른없는 많은 음식을 回甲床 위에 陳設하고 축배를 드리고 즐겁게 해 드린다. 이날 초대된 일가 친척, 친지들은 축하의 뜻으로 詩, 賦를 지어 올리기도²²⁾ 한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玉溪先生文集」 속에는 回甲宴과 관련된 回甲宴

20) 「玉溪先生文集」卷之三 第6前面~第8後面, 「先妣貞夫人權氏行狀」參照.

21) 閨房歌辭에서는 이러한 性格의 頤壽, 慶祝 등을 內容으로 한 壽宴席에서 창작된 作品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權寧徹, 「閨房歌辭研究」, (서울: 二友出版社, 1980), p.139 參照.

22) 金宅圭外 共編, 「韓國民俗大觀 1」, (서울: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80), p.566.

의 順序와 詩文創作 獻呈의 단계는 記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回甲宴의 一般의인 절차는 위에 言及한 바와 같다.

參考로 閨房歌辭 〈壽宴榮賀讚文〉²³⁾의 一節을 引用하여, 玉溪母 權氏의 回甲宴 節次와 관련된 그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前略) 덕연을 비설하고 온갖법절 춘란하다
인물병풍 만수병은 빛도조히 들너치고
솜중석을 저닷초아 포진하고
니십스록 덕초일은 구람갓치 헛날이고
이동늬셔 버틴양은 चु지가니 망선이라
츄터잇기 버려노코 즈계양반 거동보소
영화쥬렴 놀히치고 오난손님 연접하니
남여노소 구람갓고
십훈휴가 아니라도 승우가 여운이요
철이봉영 아니라도 고봉이 만좌로다
봉성난성 버려노코 잉무공죽 춤을출다
그윽히 둘러보니 홍안빅슈 노진스님
풍치도 응중하다
교의 타서하니 명호출림 기상이요』

이렇게 볼 때에 壽宴和答時調는 明宗 5年(庚戌 1550) 盧禎의 나이 33歲때에 지어진 것이다. 「玉溪先生文集」속에는 玉溪母 回甲宴과 관련된 本時調를 읊은 日時와 場所 등을 昭詳하게 밝혀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餘他の 傍證記錄을 綜合해 볼 때 〈母夫人壽宴歌〉와 2首의 國文作品이 지어진 背景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즉 聰明敏悟하던 玉溪는 일찌기 6歲時에 父親을 잃고 홀로 母親 權氏 슬하에서 養育되었다. 그는 平素 母親을 侍側하는 道理를 다했으며, 官途에 出入하는 가운데서는 항상 母夫人을 侍側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辭職하러 함이 많았다. 또한 그는 孝誠과 아울러 兄弟間 友愛도 格別한 바 있다. 그가 33歲되던 해에 婦德높은 母親이 六旬을 맞이함에 그 自身도 隣近의 知禮縣의 縣監으로 赴任해 있었다. 그가 이 날 母夫人의 回甲宴을 맞는 心懷는 남과 달랐다. 여기에 母夫人의 壽福康寧을 기원하는 獻壽歌를 漢詩文 아닌 우리말의 시조로 읊었다는 것은 의의깊은 일이며, 母夫人도 아울러 玉溪의

23) 權寧徹, 註 21)의 冊 pp.141~142 參照.

時調에 答歌形式으로 직접 作品을 창작했으며, 玉溪 門人 趙宗道도 查丈되는 玉溪母의 壽宴에 時調 1首를 지어 올리게 된 것이다. 이들 作品이 이루어진 것은 明宗 庚戌年(1580),距今 400年이니, 이날의 佳話에 얹힌 時調 作品이 後孫의 精誠으로 文集에 남아 國文學遺産에 보탬이 되고 있다.

3. 內 容

玉溪母 安東 權氏의 回甲宴과 關聯된 作品은 아랫에 紹介하는 4首다.

- ① 萬壽山 萬壽洞의 萬壽泉이 있더이다
이물의 술을 비져 萬壽酒라 하더이다
이잔을 잡으시면 萬壽無疆 하시리다
- ② 日中 金가마고 가지말고 너말드려
너는 反哺鳥라 鳥之中 曾參이니
오늘은 날위하야 長在中天 하얏고다
- ③ 國家 太平하고 萱堂에 날이길제
머리 흰 判書아기 萬壽盃 드리논고
每日이 오늘又트면 경이 무슨 가식리
아마도 一髮秋毫 聖恩잇가 하노라
- ④ 가마고 록기 증성 그 무어시 비앗바서
九萬里 長天을 허위허위 가스논고
이제는 십너의 鴻禧식 수염수염 가렴으나

즉 ①의 〈進豐宴獻萬壽山歌〉와 ②의 〈母夫人壽宴歌〉, 그리고 ③의 〈母夫人答歌〉, ④의 〈附次〉等이다.

그런데, 壽宴和答時調는 그 內容上으로 보아 福數頌祝²⁵⁾類인데, 이는 福스러운 運數과 慶事스러움을 稱頌하여 祝賀하는 것을 主題로 한 作品群이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이 回甲宴의 福된 吉日을 맞이하였을 때 이를 稱頌하여 부른 詩歌類도 여기에 해당된다.³⁶⁾ 또한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玉溪先生續集」에 收錄된 本 作品의 排列順序이다. 위에서 轉載한 것을 보더라도

25) 徐元變, 「時調文學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1981), p. 220.

主題分類는 위의 冊을 參照하였다.

26) 福數頌祝類에 해당되는 作品은 朝鮮朝 初期 儒臣들이나 功臣에 의해서 창작된 樂章文學이 그 代表的인 例가 될 수 있다.

金思輝,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서울: 大洋出版社, 1956), p. 32.

알 수가 있듯이, 文集에서는 作家別로 分類, 收錄하고 있다. 맨 앞에 紹介한 ①과 그 다음의 ②는 盧禎의 作品이고, ③은 玉溪母 權氏가 지은 것이며 後尾에 紹介한 ④는 趙宗道の 所作이다. 그러나, 作品內容과 결부시켜 本壽宴和答時調가 붙여진 順序를 매긴다면 順序에 다소 변동이 생긴다. 즉 ①—③—②—④(進豐宴獻萬壽山歌—母夫人答歌—母夫人壽宴歌—附次)가 된다. 筆者는 이 順序에 의해서 이들 作品의 內容을 파악하기로 한다.

먼저 盧禎이 獻酌하고서 母親의 萬壽無疆을 기원하는 心情을 아래와 같이 불렀다. 그것이 ①에 해당되는 作品인 것이다.

「萬壽山 속에 萬壽판작기가 있고 그 속에 萬壽泉이라는 샘이 있었읍니다.

이 샘물로 술을 빚어내어 이를 萬壽酒라고 하였읍니다.

이잔을 잡아 이 술을 마시오면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本作品의 歌題는 〈進豐宴獻萬壽山歌〉이다. 이 歌題에 明示된 것처럼 父母님의 萬壽를 기원한 것이 本歌의 內容이다. 父母에 대한 지극한 孝誠은 父母의 萬壽無疆을 기원하게끔 된다. 부모로 하여금 五福의 하나인 長壽를 누리게 해 드리고, 또 한없이 오래오래 부모에게 孝道를 다하고 싶기 때문에 萬壽無疆을 기원하게 되는 것으로 本作品은 內容上 具體화된 孝道時調²⁷⁾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 ①번 作品에서 使用된 詩語에서 注目할 것은 ‘萬壽’라는 單語이다. 實在한 萬壽山,²⁸⁾ 萬壽峯, 萬壽泉, 萬壽酒는 아니며, 作家가 이 詩語를 使用함으로 인해서 漸層的 效果를 시험한 것이다.

한편 通時的으로 볼 때 〈進豐宴獻萬壽山歌〉는 後代인 英祖朝의 權宴²⁹⁾의 時調〈壽詞 五章(5-3)〉의 하나인 아래 作品과 그 性格을 같이 한다.

千年을 사르소서 萬年을 사르소서

泰山이 편호도록 萬傾滄海 다조도록

이天地 다시 開闢하도록 壽考無疆 호소서

盧禎이 지어 母親께 올린 獻詩에 該當되는 前項에 紹介한 〈進豐宴獻萬壽

27) 秦東赫, 「古時調文學論」, (大邱: 螢雪出版社, 1976), p.268 參照.

28) 萬壽山은 開城, 延豐, 鴻山 등에 所在한 山名이다. (東國輿地勝覽 卷之十四 等參照).

29) 筆者는 1981年 겨울 慶北 聞慶郡 花枝里 所在 玉所 權宴 後孫家를 訪問하고, 그 原典을 入手 學界에 紹介한 바가 있다.

拙稿, 玉所遺稿小攷, 「時調文學研究」第1輯 (慶山: 嶺南時調文學研究會, 1983) 附 資料篇 p.3.

山歌>에 答하여, 玉溪母 權氏는 아래와 같은 內容의 答歌를 불렀다.

「國家가 太平하고 居處에 하루 해가 긴 때에
머리가 白髮이 된 判書職의 아들이 萬壽酒를 잔에 부어 바치는구나
매일이 항상 오늘과 같으면 무슨 귀찮은 일이 있으리요
아마도 이 조그마한 모든 일도 임금의 은혜인가 생각되는구나」

母親의 答歌에서는 ‘날마다 오늘같이 기쁘던 무슨 성가신 일이 생겨 나겠는가? 한날의 털끝만한 일이라 하여도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이다’라고 하였다. 이 作品은 君王의 恩德을 감격해 하는 內容이 主題로 된 感聖恩歌 類에 해당된다. 이는 오직 太平歲月이 계속될 때에만 창작될 수 있는 作品이다.

母親의 答歌에 이어 玉溪는 다시 아래와 같은 內容의 作品을 回甲의 祝詩로 지어 불렀다.

「太陽 가운데에 있는 금까마귀여 가지 말고 내말을 들어보라
너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새라, 새 가운데 鷓鴣이니
오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복판에 그냥 머물러 있어 주기를 바라노라」

즉 금까마귀는 太陽 속에 있다는 三足鳥인데, 金鳥라고도 하며 해의 異稱이다. 따라서 금까마귀더러 長在中天하라는 것은 해가 넘어가지 않아 세월이 가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해는 금까마귀를 나타내고 까마귀는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효도를 다하는 反哺鳥로 생각했다. 까마귀는 鷓鴣같이 효성이 지극하니, 나의 孝心을 같은 처지에서 이해할 것이고, 나의 효도를 위해서 세월이 가지 않아 어머니가 늙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本作品은 母夫人의 壽宴을 당하여 長壽를 기원하는 노래이다. 즉 태양이 항상 中天에 떠 있어 歲月이 가지 않는다면 母夫人도 늙지 않을 것이고, 늙지 않는다면 長壽할 것이기에 해가 가지 않기를 기원한 노래이다. 그러기에 歌題를 <母夫人壽宴歌>라 하여, 玉溪母의 回甲宴에 얹힌 時調作品 가운데 核心을 이루고 있다.

이 玉溪의 作品 <母夫人壽宴歌>와 同一한 素材와 主題로 된 作品으로는 아래에 紹介하는 것이 있다.

日中 三足鳥야 가지 말고 내말 드러
너희는 反哺鳥라 鳥中之鷓鴣로가

北堂에 鶴髮雙親을 더의 늙게 하여라

許 璣

(「定本 時調大全」, 30) 2449)

壽宴和答時調에 該當되는 마지막의 1首는 玉溪 門人 趙宗道가 壽宴席에 同參하여 거기에서 지은 頌祝時調이다. 趙宗道가 이 作品을 짓게 된 동기는 그가 玉溪의 弟子일 뿐아니라, 玉溪母 權氏의 孫婦되는 분이 趙宗道の 누님 이기에 玉溪母는 戚分으로 查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趙宗道の 文集인 「大笑軒逸稿」 3卷 1冊에³¹⁾ 이 作品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그의 스승되는 盧禎의 「玉溪先生文集」續集에 보인 까닭은 위에서 밝힌 창작동기에 연유한 것이라 짐작이 간다.

趙宗道가 부른 獻詩의 內容은 아래와 같다.

「해 달토끼돌아 그 무엇이 바빠서

넓고 넓은 하늘을 허겁지겁 가는가

이제는 십 리에 한번씩 쉬엄쉬엄 쉬면서 가려브나」

本作品은 그가 明宗 5年(1550) 玉溪母親 甲日에 參禮하는 榮光의 機會를 얻고 그 곳에서 지은 것이다. 그 內容은 玉溪의 父母님께 대한 孝心을 헤아리고 스승님 母親의 長壽를 기원하는 弟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查丈께서는 이제 晩年을 안온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편히 쉬시며 萬壽를 다하시라고 노래하였다.

4. 形 式

壽宴和答時調는 每作品 原文 앞에 主題에 附合되는 進豐宴獻萬壽山歌, 母夫人答歌, 母夫人壽宴歌, 附次라는 歌題를 붙여 文獻編纂者가 詩歌에 대한 關心度가 높았던 것을³²⁾ 立證해 주고 있다. 孟思誠, 李賢輔, 李滉, 李珣,

30) 沈載完, 「定本 時調大全」, (서울: 一潮閣, 1984), p. 634.

31) 趙宗道の 生涯 및 詩文의 자세한 內容에 대하여는 아래의 論文에서 具體的으로 言及된 바가 있다.

李東英, 趙大笑軒先生의 忠節, 「語文教育論集」第6輯, (釜山: 釜山大師大 國語教育科, 1982), pp. 7~25.

筆者가 確認한 資料는 奎章閣所藏圖書인 「大笑軒先生逸稿」이다.

32) 이러한 實例는 光海朝人 朴墩의 鋤莠歌에서도 찾을 수 있다.

拙稿, 朴墩의 《鋤莠歌》研究, 「嶺南語文學」第10輯, (大邱: 嶺南語文學會, 1983), p. 208.

尹善道 等の 時調作品에도 위와 같은 實例가 보인다. 古時調는 一部分의 作品들이 歌題가 붙어 있는데, 聯時調에서 歌題가 붙어 있는 境遇와 短型時調中 作家, 創作動機, 歌話가 分명한 作品에 한하여 歌題가 併記된 경우가 있다. 이들 歌題가 併記된 境遇는 作品 自體의 性格이나 主題를 把握하는데 도움을 준다. 以上은 歌題가 原文에 併記된 特色에 대하여 論及하였다.³³⁾

아울러 表現樣式을 두고 볼 때 壽宴和答時調는 표기수단을 漢字語와 우리말의 混用方法을 취했으나, 그 表現에는 不自然, 진부함, 고루함이나 과장된 修辭法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연스럽게 作家의 感情이 露呈되었고, 뜻의 曲盡함을 나타내었다.

처음 논급한 盧禎의 作品 〈進豐宴獻萬壽山歌〉에서는 全篇이 ‘萬壽’라는 詩語를 強調함으로 인해서 漸層의 效果를 얻는데 成功하였다. 作家는 母親의 萬壽無疆을 기원하는 自身の 感情을 점차 昂進의으로 配置하여 그 效果를 노리고 있다.

다음으로 母夫人의 答歌를 檢討해 보면 그 形式이 特異한 點을 지적할 수가 있다. 筆者는 本稿의 原文紹介欄에서 4段으로 나누어 移記한 바가³⁴⁾ 있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볼 때에는 單型時調로 처리하기에는 疑問點이 있다. 이러한 事例는 歌辭形式으로 파악되어지고, 詠誦에 無理가 없을 것 같으며, 作家인 玉溪母가 時調形式에 대한 認識이 不足한 것으로도³⁵⁾ 볼 수가 있다. 또한 感聖恩의 內容으로 完結되는 形式을 取한 것은 朝鮮前期에 創作된 樂章이나 四時歌類 其他 江湖詩歌 全般에 適用되는 共通의인 特質이며, 當代에 보편적으로 通用된 思考方式인 것이고, 이는 既存秩序에 대해 樂觀的 내지는 讚揚으로 解釋되어 지는³⁶⁾ 것이다. 이 作品은 그녀가 아들의 作品에 대한 和答歌로서 어머니의 養母와 국가의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이며, 自身の 積極적인 이념에 입각한 의식근거와 士大夫 婦女로서의 이념지향적인 性格을 보인 點에서 높이 評價되는 作品인³⁷⁾ 것이다.

계속되는 作品 〈母夫人壽宴歌〉에서는 까마귀를 題材로 채택하였는데, 까마귀라고 하면 不吉하고 청승맞아 人間들에게 배척되어 온 이미지로 通用되

33) 沈載完, 註 30)의 冊 pp.888~889 參照.

34) 本稿 IV項中 原文紹介欄 參照.

35) 李東英, 註 2)의 冊 p.163 參照.

36) 金興圭, 江湖自然과 政治現實, 「古典詩歌論」, (金學成, 權斗煥編) (서울: 새문사, 1984), p.393 參照.

37) 李男熙, 女流古時調研究, 嶺南大碩士學位論文(慶山: 嶺南大, 1983), p.29.

는 것이 常例인데, 本作品에서는 그와 다르게 형상적 의미, 밝은 이미지³⁸⁾로 표현되는 構成方法을 取했다.

그리고 大笑軒의 作品에서는 時間을 主觀의으로 意識했고 유한한 時間을 연장하는 방법은 老後의 心身을 平穩하게 즐거운 날을 많이 가지는 것임을 強調한³⁹⁾ 作品의 實例에 해당된다. 더구나 詩語 ‘하위하위’와 ‘수염수염’의 擬態語의 對立을 통한 효과를 시도한 形式을 취한 것은 特異한 構成方法이다.

5. 價 值

本「玉溪先生續集」에는 都合 3人의 作品이 실려 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玉溪母 權氏, 大笑軒 趙宗道の 作品 等 2首는 既刊「歷代時調全書」에도 收錄되지 아니한 新資料로서 價値를 지닌다.

또한 古時調部分에서 和答歌라고 하던 麗末의 何如歌와 丹心歌를 생각하게 하고, 아울러 林梯와 寒雨의 和答時調를 열거하고, 나아가 餘他 妓女群에 의하여 唱和된 風月譚을 內容으로 한 것을 言及하고 있는 程度이다.⁴⁰⁾ 이런 點에서 「玉溪先生續集」에 실린 아들과 그 어머니, 아들의 弟子 사이에 불리워진 和答時調가 發掘되었음은 특별한 意義를 지니기에 충분하다. 거기 다가 時調作家의 分布面에서도 女流作家라고 하던 거의가 妓女層이고, 그 例外가 되는 境遇는⁴¹⁾ 宮女, 平壤無名氏女人 밖에 없었다.

그런데 玉溪母 權氏의 作品이 傳承되고 있음은 士大夫家 女人層에서도 時調創作에 參與한 事實이 立證된 것이며, 向後 그들의 作品이 發掘될 可能性을 시사해 준다는 點에서 文學的 意義가 있다고 본다.

한편 他장르인 閨房歌辭에서는 頌壽, 慶祝 等を 主題로 한 回甲에 관련된 作品들이 다수 蒐集, 整理되어⁴²⁾ 있는데 전주어, 古時調의 境遇는 回甲宴에서 불리워진 作品이 거의 전하고 있지 않는 實情에서 「玉溪先生續集」에 실

38) 오동춘, 옛 시조에 나타난 ‘까마귀’ 소재연구, 「韓國文學論叢」第1輯, (서울: 韓國文學研究會, 1979), p.68 參照.

39) 徐大錫, 時調에 나타난 時間意識, 「백영정병옥선생환갑기념논총」, (서울: 新丘文化社, 1982), p.469. 參照

40) 筆者는 現在 古時調 가운데 和答의 形式을 띤 作品을 대상으로 하여 「和答時調考」라는 論文을 집필하고 있다. 여기서 第Ⅱ項에 和答時調의 系譜를 作成하였다.

41) 沈載完, 時調作家研究—妓流作家의 境遇—,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大田: 湖西文化社, 1971), p.266.

42)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서울: 一志社, 1982), 附錄 「歌辭系覽」 參照.

린 것과 같은 回甲宴과 관련된 作品이 남아 있다는 것은 充分히 注目の 대상이 될 직하다.

V. 結 論

以上 壽宴和答時調에 관해서 言及한 內容들을 要約, 整理하여 結論을 삼고자 한다.

① 古時調 5首가 收錄된 玉溪 盧禎의 文集은 本稿를 통해서 具體的으로 論議의 對象이 된 셈이다.

이 文獻의 分量은 原集이 7卷 4冊이고, 續集은 4卷 2冊인데, 時調가 收錄된 文獻은 高宗 10年(1873年)에 刊行된 後者이다. 여기에 〈歌〉란 項目이 있고 時調가 紹介되고 있는데, 續集 卷之一 第34・後面에서 第35面・後面까지 해당이 된다.

② 「玉溪先生續集」에 收錄된 壽宴和答時調의 作家는 都合 3人이다. 〈進豐宴獻萬壽山歌〉와 〈母夫人壽宴歌〉를 창작한 분은 字를 子膺 號를 玉溪라고 한 盧禎이며, 〈母夫人答歌〉는 玉溪母 安東 權氏에 의해서 불리워졌고, 〈附次〉에 該當되는 作品은 玉溪 門人, 字를 伯由, 號를 大笑軒이라고 한 趙宗道所作인 것이다.

③ 壽宴和答時調는 明宗 5年(庚戌, 1550年), 玉溪母의 回甲宴席에서 불리워진 것이다.

④ 壽宴和答時調의 內容은 福數頌祝類에 該當된다. 이들을 細分해서 살펴보면 〈進豐宴獻萬壽山歌〉는 孝道時調요, 〈母夫人答歌〉는 感聖恩類이고, 〈母夫人壽宴歌〉도 역시 孝道時調에 속하며, 〈附次〉의 作品은 頌祝時調에 포함된다.

⑤ 作品構成에 있어서 壽宴和答時調는 作品自體의 性格이나 主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歌題를 붙여, 文獻編纂者가 詩歌에 대한 關心度가 높았음을 立證해 주고 있다.

또한 形式面에 있어서도 單型時調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歌辭形式의 玉溪母의 作品도 있어서 多少의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⑥ 本稿에서 紹介한 作品中 玉溪母 1首와 趙宗道の 경우는 新資料이다.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 그 弟子 사이의 和答時調로 인정되는 壽宴和答時調는 女流作家의 分布面이나 그 特性으로 보아 意義를 지닌다.

參 考 文 獻

□ 資 料

- 國朝人物考(下), 서울大出版部 影印本, 1978.
大笑軒先生逸稿, 3卷 1冊, 奎章閣所藏本.
俛仰集(李朝名賢集 3 所收), 成均館大 影印本, 1973.
玉溪先生文集 原集 7卷 4冊, 續集 4卷 2冊, 嶺南大所藏本.

□ 單行本類

- 權寧徹, 閨房歌辭研究, 二友出版社, 1980.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大洋出版社, 1956.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瑞文堂, 1977.
金宅圭外 共編, 韓國民俗大觀 I, 民族文化研究所(高麗大), 1980.
東亞文化研究所(서울大)編, 國語國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74.
民族文化推進會編, 國譯 東國輿地勝覽 VI, 景仁文化社, 1969.
徐元燮, 時調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81.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
——, 定本 時調大全, 一潮閣, 1984.
李秉岐, 歷代時調選, 博文出版社, 1946.
秦東赫, 古時調文學論, 螢雪出版社, 1976.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忘社, 1982.

□ 論 文 類

- 金興圭, 江湖自然과 정치현실, 「古典詩歌論」, (金學成・權斗煥編), 새문사, 1984.
沈載完, 時調作家研究—妓流作家의 境遇—,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湖西文化社, 1971.
오동춘, 옛 시조에 나타난 ‘까마귀’ 소재 연구, 韓國文學論叢 第1輯, 韓國文學研究會, 1979.
李男熙, 女流古時調研究, 嶺南大碩士學位論文, 1983.
李東英, 「江右詩歌研究」序說, 陶南學報 第四輯, 陶南學會, 1981.
——, 趙大笑軒先生의 忠節, 語文教育論集 第6輯, 釜山大 師大, 1982.
——, 盧玉溪의 生涯와 時調, 「朝鮮朝 嶺南詩歌研究」, (李東英著) 螢雪出版社, 1984.
鄭明世, 古時調文獻의 研究, 嶺南大碩士學位論文, 1982.

- ，玉所遺稿小攷，時調文學研究 第1輯，嶺南時調文學研究會，1983.
- ，朴敬의 《鋤莠歌》研究，嶺南語文學 第10輯，嶺南語文學會，1983.
- 崔勝範，壽宴和答歌，廣場 1979年 5月號，世界平和教授協議會，1979.